

공공도서관과 정보교육*

유 소 영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목 차

1. 정보문맹과 정보교육
2. 정보교육의 내용
3. 정보교육의 방법
3.1 개별교육방식
3.2 그룹별 통합적 교육방식
4. 공공도서관에서의 적용 가능성
5. 예상되는 문제점
6. 결 론

1. 정보문맹과 정보교육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정보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신문에 써 있는 내용이 정보입니다.

TV를 볼 때 TV에서 전하는 내용이 정보입니다. 책을 볼 때, 잡지를 볼 때, 책에 또는 잡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정보입니다. 책이나 잡지나 신문이 몇종류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내용을 읽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글자를 알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제14차 정기총회(1994. 12. 16) 세미나 발표문

급작스럽게 복잡해졌고 지금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신문의 종류도 많아지고 면수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잡지도 종류가 많아지고 부피도 두꺼워졌습니다. 책은 또 얼마나 많은 종류가 출판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사회생활이 복잡해졌다는 증거일 것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양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사회인으로 사는 것이며 그 사회의 사정을 알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보를 많이 만들어 낸다고 해서 사회와 유리되어서 살 수 없습니다.

한편, 새로운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그것이 또 우리생활 속에 도구로 사용됩니다. 1960년대에는 일반가정에 지금처럼 버튼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전축이나 VTR의 리모콘을 보시면 복잡하게 버튼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버튼을 이것저것 누르면서 선택을 합니다.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주부가 외출해서 집밖으로 불일을 보면서 집안의 밥솥 열을 가하여 밥을 끓일 수 있는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생활에 편리한 도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작가들은 원고지에 글을 쓰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 글을 씁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는데 모두 컴퓨터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몇년전에는 목록하는 일을 사람이 했지 컴퓨터에게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서 우리는 두가지 문

제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훌륭하게 생활을 영위하려면 그 많은 정보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려면 우선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또 얻어낸 다음에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자신의 문제해결에 응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발달해가는 새로운 기술을 쓸 줄을 모르면 낙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철정거장에 가면 표과는 기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철역엔 사람이 동시에 표를 팔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어느시점부터 모두 기계가 파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때 기계에서 전철표를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오도가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후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새로 도서관에 취직하는 젊은 사서가 컴퓨터로 자료정리하는 방법을 모르면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후의 시대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또 그 많은 정보들이 컴퓨터와 같은 기기나 새로운 형태의 기록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들 기기나 매체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래전부터 정보문맹이란 용어가 나왔는데 그뜻은 정보홍수 시대에 살면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줄 모르고, 해독할 줄 모르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문맹에서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보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교육은 성격상 대 국민교육입니다.

당연히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것이고 또 공공도서관은 주요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이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2. 정보교육의 내용

그러면, 전체국민이 정보를 잘 다룰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보교육의 내용을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체에 관한 것입니다. 매체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릇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인쇄본이나 Micro-form, 영화, 비디오 자료, 오디오자료, 컴퓨터 디스켓, 마그네틱 테이프, 요즈음 유행하기 시작한 CD-ROM 등이 모두 정보매체입니다. 도서관사람들은 이러한 매체중에 종이에 인쇄된 책자 매체는 중요하게 취급하고 비책자매체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비책자 매체가 중요해지고 도서관 자료의 비율이 지금과는 반대가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컴퓨터가 보급되고, 점점 더 읽는 자료보다 영상을 통해서 보는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누구나 눈치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와 같은 제2국민을 가르치는 공식교육기관에서 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정보매체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비책자매체는 거의 대부분 이 기기를 사용해서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매체를 걸어서 읽거나 볼 수 있도록 기기를 조작하는 기술도 아울러 교육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보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까지의 과정에 대한 교육과 훈련입니다. 소위 참고서지 정보교육을 말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것을 고르고 꺼내는 일이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서관에는 목록이나 서지, 색인, 초록, 서지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서지류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이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차자료의 이용법을 익혀서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지식으로 알도록 교육한다기보다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때 의례히 해당되는 이차자료를 검색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먼저 문제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요점을 알아내는 훈련을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 2) 다음으로 문제를 정확히 표현하는 용어들을 확인함으로써 탐색의 실마리를 마련합니다.
- 3) 세번째는 확인된 용어들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가 어떤 이차자료에 들어있는지 알아서 그 이차자료를 검색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목록이나 서지 혹은 초록이나 색인지 같은 인쇄본을 검색할 경우도 있고 On-line 서지 데이터베이스 혹은 CD-ROM과 같이 컴퓨터물을 검색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이러한 이차자료들은 인쇄본보다 컴퓨터를 사용해야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더 많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 4) 참고서지 정보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이차자료를 검색해서 얻은 정보가 서지사항만으로 되어 있거나 서지사항과 초록이 들어있는 간략정보이므로 원문자료를 획득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당해 도서관에 없으면 종합목록을 이용하여 어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정보산업체들을 통해서 원문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서 필요할 때 자료를 지체없이 얻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정보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세번째 내용은 손안에 들어온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과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의 훈련을 언어교육과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읽기 혹은 듣기와 쓰기 혹은 말하기는 정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이라고 생각되는 까닭입니다.

문제해결에 필요하여 얻어낸 정보는 읽어서 혹은 들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고 편견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말

합니다. 이해력, 분석력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요. 또 정보를 이용할 때 자료를 빠르게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노트하면 읽고 이해하고 분석한 것을 정보이용자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보를 이용할 때 노트하는 것도 또한 도움이 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파악한 정보를 문제해결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해 혹은 분석한 자료들을 비교, 평가,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나 평가, 종합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합니다. 연후에 판단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보를 문제해결에 응용하려면 판단을 잘해서 응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하루아침에 주입식으로 가르쳐서는 되지 않는 교육입니다. 정보이용자 자신의 사고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정보이용자들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도표나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자신의 표현으로 해설해 가면서 사고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돈합니다. 이것은 결국 언어교육에서 쓰거나 말하기와 같이 자기식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교, 평가, 종합하고 그 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첨가하여 생각해내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재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창조는 거의 모두가 재창조입니다.

정보이용의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앞에서 언어교육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언어교육과 꼭 같은 것은 아닙니

다. 정보교육은 언어만을 잘 구사하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문장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교, 평가, 종합하여 올바른 판단에 이르는 과정만을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교육은 어떤 분야에 관한 문제이거나 또 이론의 문제거나 실제의 문제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잘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교육은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해력, 분석력, 종합력, 사고력, 창조력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바로 정보교육이 어려서부터 잘되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3. 정보교육의 방법

그러면 이와 같은 정보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 개별교육방식

한가지 방법은 개별봉사시에 행하는 정보교육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에게 이용하려는 자료를 쉽게 찾도록 도와준다면 자료의 이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봉사 자체가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서관들이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정보 교육을 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이용자들에게 봉사한다면 친절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매 경우를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란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교육의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2 그룹별 통합적 교육방식

이방식의 정보교육은 학교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될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정보과목은 국어나 수학, 영어와 같이 필수과목으로 취급해야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뒤쳐지지 않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정보교육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어나 수학처럼 정보수업시간을 따로 정하여 정보교육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효과가 적습니다. 정보교육은 그 목적이 당면한 문제를, 정보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우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합니다. 또 그 문제의 해결이 배우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기위해서 다른 교과목의 과제를 정보수업시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로 삼아 실습위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통합적 교육방식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공공도서관에서 오신 분들이므로 지금 말씀드린 학교교육을 전제로한 정보교육 방법을 공공도서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4. 공공도서관에서의 적용 가능성

공공도서관이 실시할 수 있는 정보교육의 방법을 교육기간별로 두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와 같이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독서교실을 열 때 집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가 학기중일때 인근 국민학교에 도서관시간을 배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들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일종의 정보교육입니다. 단지 교육대상자와 교육내용을 범주가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도서관 목록이나 색인, 또는 사전, 연감 등 이차자료 이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서 한두가지씩 교육내용의 범위를 넓히고 교육대상자도 국민학생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에게도 확대한다면 매우 뜻있는 정보교육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기중에 있을 때 수업시간과 연계하여 정보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는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립도서관들은 제가 알기에 시청각기자재 즉 비책자 매체에 해당하는 기기나 자료는 많이 구비하고 있지 않으나 책자매체는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참고자료들 즉 2차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므로 수업은 얼마든지 재미있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국어수업과 연계하여 정보교육을 실시할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어담당선생님과 정보수업담당사서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

표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가 점검합니다. 이에따라 정보담당사서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리스트를 만들고 도서관에 그 자료들이 없을 때에는 다른 도서관에서 대출해온다거나 새로 주문을 하여 구비합니다.

일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인근 학교학생들이 도서관에 오고 국어수업을 도서관에서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그 단원에 관해서 각자가, 혹은 그룹이 알고싶은 문제 또는 교사가 제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료를 통해 해결합니다. 이때 도서관 전체가 그들의 수업교실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담당사서는 가르칠 내용에서 교과단원의 저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전기가 포함되어 있는 백과사전이나 인명사전을 제시하고 어려운 단어를 국어사전을 이용해서 찾도록 사전이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그룹으로 소근소근 이야기할 기회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도서관은 죽은듯이 조용해야 하는 곳이지만 지금의 도서관은 부산하게 자료를 이용하고 소그룹으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서관을 지을 때 소그룹이 토의할 수 있는 칸막이가 되어있는 구석방을 많이 만들어 놓거나 아예 그런방에 문까지 달아서 외부에 구애하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지금의 중고등학교수업을 한학기에 몇번정도라도 이와같이 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우선 도서관 목록이 무엇

인지 그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각 교과단원에 따라 얼마나 많은 관련자료들이 있으며 그런 자료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사람들이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생각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이 자라는 기회는 시립도서관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공부방을 얻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을 여러분은 늘 보셨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도서관의 진가를 알리는 일을 하신다면 우선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도서관측으로서도 도서관으로서의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립도서관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당당한 명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도서관 장서가 정보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점차로 갖추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장서가 충실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정보수업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지로 이 일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예상되는 문제점

앞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보교육을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보았습니다. 하나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집중적 교육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학기중에 학교수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형태였습니다. 여기서는 학기중에 인근학교의 학교수업과 연계하여 정보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도서관과 학교의 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10분 이내에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거리내에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요.

2) 학교의 수업은 학급단위로 진행되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서울의 학교는 한학급에 40~50명 입니다. 한번에 같은 책이 40~50부씩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40~50명씩 도서관에서 비슷한 혹은 같은 주제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한 그룹이 교과단원과 관계되는 자료를 목록이나 색인과 같은 이차자료 혹은 원문 자료를 이용하고 있을 때, 다른 그룹의 학생들 드른 교과공부와 무관한 책을 대출하여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후에는 두 그룹이 서로 바꾸어, 교과단원관계자료를 공부하던 학생이 교과단원과 무관한 자료를, 예를 들면 읽고 싶은 소설같은 것을 대출하여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학생들이 과제를 다 못할 경우는 방과후에 다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들이 예산이 부족하여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목록이나 색인, 초록과 같은 서지류가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마도 고등학생들은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이나 중앙일보에서 금년부터 시작한 중앙일보 색인시스템(JOINS) 같은 것을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어려운 문제는 수업시간의 경직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는 한시간이 40~45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보수업을 동시에 겸하여 하는 교과수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립도서관들이 인근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시간도 오전의 2시간을 시간표상에 연속하여 짜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봉사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학교당국과 하기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학교 상급학년은 물론 중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더욱더 수업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당국과 교과목담당교사들에게 분명한 교육계획안을 제시하여 협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5) 정보교육의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정보교육담당사서가 나설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의 각 교과담당 교사들이 정보교육의 내용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교과목은 성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정보교육만이 점수화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소홀하게 여길 것입니다.

6) 가장 힘든 문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교의 교과담당교사가 공공도서관의 정보담당사서의 협력입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핵심

은 교과목 수업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여 정보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두 선생님께서 공동작전을 펴야 합니다. 그러나 교과목담당선생님은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는 시간은 공공도서관이 이들을 맡아서 가르치게 되어 있는 시간으로 오해하고 잠시 쉬거나 다른 볼일을 볼 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교육도 잘되지 않고 원래의 교과수업도 잘되지 않게 됩니다.

7) 마지막으로 현재 공공도서관은 비책자매체 및 이들 매체를 위한 기기는 매우 부족한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할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처음부터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착실히 해 나가서 그 효과가 입증되면 점차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6. 결 론

우리나라 현실이 학교가 도서관을 도외시해 왔습니다. 이제 대학시험제도가 바뀌어져서 학생들에게 독서를 시켜야 한다, 사고력을 연마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교과독서평설”같은 잡지도 여러가지가 나오고 학교주변에 명작소설 리스트도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공부와는 별도로 명작소설이나 사상전집 같은 것이 아니라 학교수업 자체가, 다시말하면 국어나 수학이나 역사, 과학 등

등의 교과목수업이 모두 독서를 통해서 사고력을 연마할 내용들이며 독서를 통해서 그 각분야의 안목을 길러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교과목 내용을 선생님이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학생들이 외우기 좋게 만들어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학생들 자신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해서 공부하도록 안내하는 길을 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 사람들은 좋은 안내자들입니다.

도서관 자료에는 어떤 교과목 내용이나 다 들어 있습니다. 없을 때는 가져다 놓으면 또 있는 것이지요. 이 자료로 젊은 세대를 잘 안내해서 앞으로의 시대가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도서관들이 이것을 할 여건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안하던 도서관을 하루 아침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공공도서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1995년도 한국도서관협회 신간안내 ② ◀

사회과학정보론/최은주 저/A5신, 377면/11,000원(도협 회원에게는 8,800원)/〈현대정보관리학총서 제22권〉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정보봉사의 중요성에 비하여 우리 분야의 학문적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현실에서, 연구-교수-학습을 위한 충실한 안내서가 절실하게 요망되어 오던 차에, 특히 강단에서 직접 그 필요성을 절감한 저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역작. 제1부에서는 사회과학정보를 이해하고 다루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생각되는 배경적 지식을, 제2부에서는 사회과학 영역을 12개 주제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정의, 역사적 배경, 세부학문분야 및 연구방법 등에 관한 개관과 함께 주요 참고정보자료들을 다루었음. 특히 국외의 2차자료들에 대한 해설, 국내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소개, 그리고 문헌정보학을 사회과학 분야에 포함시켜 다룬점 등은 더욱 이 책을 돋보이게 하고 있음.

시스템 분석과 설계/JENNIFER E. ROWLEY 저/노정순, 이효숙 역/A5신, 213면/7,500원(도협 회원에게는 6,000원)/〈현대정보관리학총서 제23권〉

이 책은 컴퓨터정보시스템을 선정하고 설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의 분석과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기본원리와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 첫째, 시스템분석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분석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의 분석 및 논리적 모델링에 관한 방법론과 기법을 소개. 둘째, 데이터베이스설계에서는 시스템에서 사용될 데이터를 모델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화하고 조직, 축적, 실행하는데 필요한 원리와 방법을 다룸. 셋째, 시스템설계에서는 입출력, 대화, 양식, 코드 등에 대하여, 넷째, 시스템실행에서는 시스템설치 및 테스트, 데이터변환, 직원훈련, 시스템 보안과 평가에 대하여 이론과 지침을 제시. 이 책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과 통제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시스템분석과 설계에 대한 기초를 제공함은 물론, 이 분야의 학생들과 현장에서 컴퓨터정보시스템을 계획·운영하는 도서관 실무자에게 두루 유용한 필독서가 될 것임.